

# 현시기 국제통화관계의 변화추이에 대한 리해

김영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세계경제는 매우 큰 혼란상태에 빠져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57권 384페이지)

국제통화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여러가지 변화들에 대하여 잘 알고 국제금융활동을 주동적으로, 능란하게 벌려나가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현시기 국제통화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보다먼저 국제통화관계가 다극화되고있는것이다.

국제통화관계의 다극화추이는 기축통화인 미달러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제통화의 지위를 노리는 민족통화 또는 지역통화들의 움직임이 강화된 결과 국제통화령역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변화현상이다.

현존국제통화관계는 미제의 세계지배수단의 하나인 국제통화기금체계의 기본모순과 관련하여 생긴 체질적모순을 안고있다.

국제통화기금체계의 기본모순은 한 나라의 불태환은행권에 불과한 미달러를 기축통화의 지위에 인위적으로 올려세우고 그것을 마치도 국제통화처럼 리용하는데 있다. 본래 국제통화관계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화는 반드시 금적담보를 확고히 가진 통화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적조건을 갖춘 통화라야 한다. 금적담보를 갖추지 못한 통화는 본질상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체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무시되어있다. 국제통화기금체계는 전후의 세계경제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미제의 강권에 의하여 유지되어온 인위적인 통화체계였다.

국제통화기금체계가 안고있는 모순으로 하여 세계금융계에서는 《류동성모순》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국제수지에서 적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국제류동성문제가 비교적 《안정》하게 해결될수 있다는 모순성을 낳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면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과잉채무가 루적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모순은 국제통화기금체계가 존재해온 지난 70여년동안에 세계경제분야에서 일어난 크고작은 모든 사변들의 중요원인으로 되였다.

이처럼 세계통화분야와 금융관계가 끊임없는 불안정상태를 겪게 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일부 나라들 특히 경제장성을 이룩하고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지반에 의거하여 기축통화인 미달러에 도전하고있다.

국제통화분야에서의 각축전으로 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통화관계가 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그것은 국제통화분야에 다극화현상을 낳게 하였다.

유럽의 공동통화인 유로의 출현은 국제통화관계에서 일어난 다극화현상의 첫 발현형태였다.

유럽에서의 통화통합은 자본주의열강들이 오래동안 벌려온 경쟁과 타협으로 이루어진 유럽통합의 결과이다. 서방자본주의열강들이 장기간에 걸쳐 벌려오던 유럽통합운동은 유로의 출현을 계기로 하여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유럽 여러 나라 공동통화의 이름은 1995년 12월 15일~16일 유럽리사회 마드리드회의에서 유로로 부르기로 합의되었

다. 유로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공동통화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말까지는 은행간 거래, 금융자본시장거래, 환자거래에서 통용되었다. 단일통화인 유로의 완전도입은 2002년 1월 1일에 이루어졌으며 그해 6월말까지 각국이 사용하던 지폐와 주화는 회수되었다.

유로가 유럽공동통화로 도입된 이후 유로지역나라들의 금융상태에서는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났다.

유로사용국들은 유로를 단일화폐로 쓰게 되면서 그에 맞게 1998년 12월 3일 자기 나라 리자률을 3% 전후계선에서 발표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은 1999년 1월 1일 유로리자률을 3.16%로 선포하였다. 그후 리자률은 유로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끊임없이 조절되어왔다.

본래 미국금융시장보다 뒤떨어져있었던 유럽금융시장이 유로도입을 계기로 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것만큼 거기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유로류통과 관련하여 유럽금융시장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에 대처하여 은행업무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변동이 생겨나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금융업무가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로부터 투자은행업무로 기울어지고있는데서 나타난다. 다시말하여 예금, 대부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상업은행업무는 리자소득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띠며 은행들이 흡수, 병합되는것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고있는 반면에 채권, 주식의 발행, 인수, 매매, 금융자산의 운용, 대부채권의 증권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은행업무가 확대경향을 보이고있다.

유로의 출현은 유럽금융계전반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을뿐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도 많은 변동을 가져오게 하였다.

국제통화체계는 유로가 나타남으로써 크게 달러중심과 유로중심의 두 극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현시기 국제통화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음으로 민족통화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것이다.

민족통화의 국제화움직임이란 현시기 국제통화관계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미달러에 도전하여 자국통화를 국제통화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일본과 같이 침략적, 약탈적인 재침야망으로부터 출발한 나라들도 있고 끊임없이 강화되는 정치경제적힘에 의거하여 국제통화관계에서 자기 나라 통화의 지위를 국제통화의 수준으로 높이려는 기도밑에 세계적인 통화경쟁에 참가하려는 일부 나라들도 있다.

일본은 1930~1940년대에 《엔블럭》을 꿈꾸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대에서 온갖 통화금융적약탈을 감행하였다. 오늘날의 일본재계, 금융계의 관련자들은 지난날의 일들에 아닌보살하면서 《엔블럭》형성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대해 전혀 법적책임도, 도덕적의무도 느끼지 않고있다. 오히려 그들은 동아시아《경제협력》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는 기회를 리용하여 《엔중심》의 《아시아공동통화》체계를 마련하려고 광분하고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총재라는자(일본인)는 지역경제협력체의 형성이 아시아지역나라들 사이의 사회경제적차이로 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도전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선차적으로는 금융적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시아개발은행이 여기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현재 아시아개발은행이 일본사람들의

손에서 움직이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지레대로 하여 아시아금융계와 통화관계에 침투하려는 그들의 속심이 깔려있다.

일본반동들은 아시아경제통합을 실현하는데서 금융, 통화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심과제라고 하면서 아시아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그 재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나라사이에 진행되는 통화교환협정들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려고 한다.

아시아에서 통일적인 통화제도를 세우는것은 유럽에서의 유로성립과정과 비교할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반동들은 그 해결대책의 하나로써 일본엔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안의 통화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광주리제》를 세울 망상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2012년 세계경제는 2가지 위험 즉 유럽의 국가채무위기확대와 발전도상나라들 특히 아시아나라들에서의 인플레이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 국제경제정세 특히 국제통화관계령역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추이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나라의 리익을 지켜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 이 사업을 잘해나가면 전망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조성될 경제정세를 나라의 자주성실현에 유리하게 리용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국제통화관계변화추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 나라와 무역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과의 결제통화관계를 옹계 해결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을 다각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면서 그에 기초하여 대외경제관계에 사용할 결제통화의 종류를 확대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발전과 통화관계변화에 예견성있게, 예리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제장성률이 높으며 그에 기초하여 지역내부무역량도 빨리 늘어나고있는 지대이다.

여기에서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 나라 원의 대외적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다.

민족통화의 대외구매력을 높이는것은 국제통화관계에서 해당 통화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민족통화의 대외구매력수준은 해당 민족통화의 국내구매력수준을 반영한다. 이로부터 제기되는것은 우리 나라 원의 국내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벌리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이 과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자력갱생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응당한 높이의 구매력수준을 가진 민족통화를 틀어쥐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지역의 통화분야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력을 떨쳐야 할 것이다.